

부활과 소망의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부활

이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든
살겠고..

- 요한복음 11:25 -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April 24,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34번 - 시편 81편 찬 송 / 536장 - 죄 짐에 눌린 사람은 (통일찬송 326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183장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통일찬송 172장) 찬 송 / 516장 -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통일찬송 265장) 봉 헌 / 박진성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누가복음 15:1-10 잃은 버린 양과 동전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540장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찬송 219장)
살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2:8-17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4월은 “부활과 소망의 달”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시다.
 - 선교주일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오순절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 감사와 은혜의 예배 펜데믹 가운데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사순절 새벽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의 기도운동.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 4, 5월의 사역 선교주일(24) 선교주간(25-30) 어린이 주일(5/1)
만남과 나눔 주간(1-7) 어버이주일/Mother's Day(5/8)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8-14) 소금과 빛 된 주간(15-21)

♥4월 생일축하♥ 장영현(16)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섬김이

	4/24	5/1	5/8	5/15
주일예배기도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4/24	5/1	5/8	5/15
주일헌금위원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4월	5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Marvlous Trasnformation” / 요한복음 20:1-18, 시편 118:21-23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마리아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함께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 비해,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충분히 지킨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혼란 속의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울음이 변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사별의 고통이 변하여 영생의 믿음으로, 마리아는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했다.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예수님은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신다.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경이로운 대전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이다.

잃은 버린 양과 동전 / 누가복음 15:1-10

잃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

되찾은 기쁨

하나님에게 우리는 “귀한” 존재이다

잃은 버린 양과 동전 / 누가복음 15:1-10

누가복음 15장의 두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첫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이다. 어떤 목자가 백 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지자 그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 여러 곳을 찾아 다니다 드디어 그 양을 찾고 돌아와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하며 함께 기뻐했다.

둘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다.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다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낸다. 그리고는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한다. 드라크마는 단순한 동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신랑은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열 개를 꿰어서 신부에게 주곤 하였다. 따라서, 여인이 간절히 찾은 것은 그 동전의 가치 외에도 그것이 가진 특별한 의미 때문이었다.

두 비유에서 공통된 점은, 우선 그들이 잃은 것을 “찾도록” 계속 찾았다는 점이다. (4.8절) 즉,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잃은 양을 되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은 찾고 난 후의 반응이 똑 같다. 즉,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한다. 목자에게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단순한 양 이상의 존재였고, 여인에게 동전 하나가 단순한 동전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값으로 따질 수 있는가.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이다.

혹시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길도 없다. “이왕 가던 길, 나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부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개인과 교회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소유하 실 때 우리 마음은 실제적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 복을 주지 못하시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의 지체들이 분열되면 힘을 잃게 된다.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할 그릇이 여러 조각으로 깨어지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녹여 하나로 만들어주소서! 오순절에 사람들을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만들었던 성령으로 하여금 저희들 안에서 복된 역사를 행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왜 죄를 범했을까? 이기심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 자아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은 하와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바로 죄를 뒤집어씌우기 시작했다. 인간이 이기심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잃게 된 것이다.

죄가 인간에게 행한 짓 가운데 최악의 것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기심은 사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아마 당신 주변에는 사랑하기 무척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늘 당신 속을 뒤집어놓는다. 그 사람의 성격은 당신의 성격과 완전히 상극이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친구여!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치기 원했던 교훈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하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아름다운 생각들로 당신 자신을 기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판단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갖고 있다면 당연히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앤드류 머레이,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오순절

오순절(五旬節, The Day of Pentecost)은 한자로 '다섯 오(五)', '열 순(旬)' 자를 쓴다. 다섯번의 열흘, 즉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하나님의 절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켰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전파했다. 한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들이 다시금 열정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첫 장을 열면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은 “며칠 후에 성령을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체류했다. (사도행전 1:3~4, 13~14)

즉,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끝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 . . 각 사람위에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 . .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현대인의성경 사도행전 2:1~5)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대,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에서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었다(사도행전 2:9~11). 2천년 전 이날,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방언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교는 일대 전기를 맞았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과 '부활절(무교절 후 안식 후 첫날)'을 지켰으며,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을 지켰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 . .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부활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 . .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사도행전 20:6~16)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절기의 배열을 보면, 먼저 무교절이 기록되었고, 다음에는 부활절이 기록되었고, 다음에는 오순절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다른 기록을 보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고린도전서 16:8)

사도 바울이 이방지역인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오순절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한 내용을 보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지역에서도 오순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라다이어서 5장 22-23

“가라다이어서 5장 22-23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